

문화콘텐츠 윤리 개념 연구 : 도덕 회의주의를 중심으로

주기환 (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된 저서, 논문, 기사의 수가 그 대상의 중요도에 대한 지표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 즉 윤리라는 개념은 인류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시급의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C. I. 루이스의 “이 세상에서,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¹⁾”라는 명제가 현재에도 여전히 그 유효성을 담보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21세기 문제의 중심에 문화 콘텐츠가 있다는 진단은 비약이 아니다. 예술과 산업, 기술 등의 융합과 창조를 통해 탄생한 문화콘텐츠²⁾는 그것이 가리키는 광의의 지시체군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옳고 그름의 토대 위에 존립하며 문제 소용돌이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다.³⁾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윤리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응용 윤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어떤 실천적, 규범적 윤리를 연구하는 시도는 적확하지 만⁴⁾ 그 이전에 핵심이 되는 도덕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근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즉 메타윤리학(meta-ethics)에 관련한 논의를 다루지 않는다면 향후 관련 윤리의 방향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정합적인 체계로서의 문화콘텐츠 윤리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⁵⁾ 그렇기에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의 옳고 그름의 기준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것의 근간이 되는 윤리의 개념적 토대를 다지는 작업을 행한다.

2. 옳고 그름의 이론 : 도덕 회의주의

메타윤리학은 도덕의 존재론적 문제와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관점에 의거, 크게 두 측면에서 개념에 접근한다.⁶⁾ 먼저 도덕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하며 실제 세상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실재론(moral realism),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 주장인 반실재론(moral anti-realism). 그리고 도덕의 존재와는 별개로 도덕적 발화나 주장들이 어떤 진릿값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릿값 형성을 긍정하는 인지주의(cognitivism)와 부정하는 비인지주의(non-cognitivism)로 나뉜다.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도덕 실재론과 인지주의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반대로 반실재론과 비인지주의가 관계를 맺을 듯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반실재론과 인지주의가 긴밀히 엮이는 경우가 있는데, 본고에서 중심이 되는 메타윤리학 이론인 도덕 회의주의가 그렇다. 도덕 회의주의는 반실재론, 즉 도덕이란 개념이

1) C. I. Lewis, *The Ground and Nature of the Right*,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5, p. 27.

2)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문화콘텐츠의 중요성, 2014년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4) p. 5.

3) 인간의 모든 행위가 윤리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Peter Singer, *A Companion to Ethics*, Oxford, UK: Blackwell Reference, 1993, p. 5.

4) 예시로 생명 윤리로서 동물 예능 보기, 딥페이크 문제 등이 있다.

5) 현재 맥키, 도덕 회의주의와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 조망한 연구의 경우 한국과 영국(creative industry)의 문화산업과 관련해서는 검색이 되지 않으며 미국(entertainment industry)과 관련해서만 몇 개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6) 본고에서는 세이어-맥코드(Sayre-McCord)의 메타윤리학 분류기준을 따랐다. G. Sayre-McCord, *Essays on Moral Realis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참고.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신 인지주의적 접근, 즉 도덕이 사회 내 객관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는 논지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1977년 호주의 철학자 맥키가 책 『Ethics: Inventing Right and Wrong』에서 “객관적인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⁷⁾”라는 문장으로 열어젖힌 도덕 회의주의(moral skepticism)는 도덕 객관주의(moral objectivism)으로 수렴되는 대부분의 철학자가 주장한 과거의 윤리학에 오류가 있다는 반성을 가한다.

맥키는 객관적인 도덕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다 보면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설사 그것의 존재를 긍정하며 도덕을 상정해놓는 것이 사회적으로 모범적이라고 한들, 우리가 그것의 객관적인 존재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키의 주장은 오류 이론이라 명명된다. 오류 이론 핵심은 기존의 도덕 논의가 묵시적으로 어떤 것을 객관화시켜놓고, 혹은 객관화를 요구한 채 이론을 전개하지만 그 요구와 묵시적인 규정 모두 실상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맥키는 오류 이론을 유령의 집에 빗대어, 사람들이 도덕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유령의 집에 사는 유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즉 그것을 이미 객관적으로 상정해놓고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령의 집에는 실재하는 유령은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논리적이며 정합적인 사유 작업이 이루어진다 한들 유령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별개이며 유령의 존재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사 도덕이 우리의 언어와 사고 속에 깊게 배어있다고 한들 도덕이 일양(一陽)적으로 실존한다는 주장과 별개이다.

3. 오류 이론의 세 논증

맥키는 오류 이론을 상호 보완되는 세 가지 주장으로 논증했다. 먼저 첫 번째, 도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논증은 상대성 논증(the argument from relativity)이다. 상대성 논증이란 모든 곳의 사람들이 따른 보편적, 객관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⁸⁾ 즉 도덕적 불일치가 존재하기에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논증인데, 이러한 윤리 상대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도덕 실재론자들의 측면에서, 즉 문화 간 윤리 법칙의 불일치가 보편적인 윤리 법칙의 부재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며 나아가 그 각각이 변이들이 객관적 도덕의 지역적 변용일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쉬이 반박이 가능하다. 물론 맥키는 이런 식의 메타정당화(meta-justification)를 반박하지만 그 역시 이 논증을 결정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상대성 논증은 논박보다는 지금까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개념을 주창하는 객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어떤 틈을 형성하는 논증에 가깝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그들을 세격하는 것은 바로 다음 논증, 기이성 논증이다.

맥키는 기이성 논증(the argument from queerness)으로 도덕을 포함한 어떤 가치가 독립적으로 보편적, 객관적인 존재를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의 부적절함을 보여주하고자 했다.⁹⁾ 논증을 거칠게 요약해보자면 객관적인 가치가 없는데 객관적인 가치의 존재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기이하다는 것이다. 기이성 논증은 도덕 개념의 존재론적(ontological), 인식론적(epistemological) 논의로 기존의 도덕과 관련한 형이상학을 정확히 겨냥하며 그 ‘기이한 도덕’의 예시로서 플라톤, 시지윅, 칸트와 도덕 객관주의자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기이성의 논증은 두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첫 번째,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직관주의자들과

7) J. L. Mackie, *Ethics: Inventing Right and Wrong*, Penguin, 1977, p. 15.

8) *Ibid.*, pp. 44-5.

9) 모든 가치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맥키의 주장은 문화콘텐츠와 같은 타분야로의 논의 확장 가능성을 내포한다.

객관주의자들을 비판한다. 맥키는 플라톤을 예시로 들며 그와 같은 이원론적 도덕관념을 주장하는 철학자는 도덕이라는 실재에 닿게 하는 이상한 종류의 직관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쥘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되게 만든다고 주장, 이러한 직관을 믿는 직관주의자들에게 그것의 존재나 방법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요구되지만 그 능력과 관련한 증명 예시는 귀납적으로 제시된 적 없다고 비판한다. 이것이 객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되는 것은 맥키가 “직관주의자들의 (윤리적) 주체가 결국 객관주의자들의 가치관을 수용¹⁰⁾”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직관주의가 객관주의자들이 도덕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¹¹⁾ 그러므로 맥키에게 객관주의는 직관주의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¹²⁾

나아가 맥키는 도덕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비판을 가한다. 만약 도덕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특수한 ‘직관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도덕의 원형은 과학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우주(경험 세계; universe) 안의 그 어떤 것과도 전적으로 다른, 매우 기이한 종류의 것¹³⁾”이라고 역설한다. 맥키는 도덕이 정말로 객관적인 가치로서 존재한다면 그 존재 근간에 객관적 규정(objective prescriptions)이 필요함을 요청한다.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다른 물체들과 같이 경험 조건을 갖추어 그것을 실제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존재한다. 왜 그동안 도덕의 보편성, 객관성을 많은 학자가, 사람들이 긍정해온 것일까? 마지막 세 번째 투영 논증(the argument from projection)이 그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준다. 투영 논증은 우리가 도덕을 객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다기보다 개인의 주관적 믿음을 외부 세계 투영하려는 본능적인 경향성의 결과라는 주장이다.¹⁵⁾ 맥키는 이 주장의 근거를 그의 사상적 근간을 차지하는 흄에게서 가져온다. 흄은 도덕이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감정의 투사라고 보았다. 맥키는 이러한 흄의 입장을 수용하여 도덕에 대한 객관성 부여가 감상적 오류(pathetic fallacy), 즉 도덕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우리의 주관적 감정이 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도덕 개념에 투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성, 즉 투영 심리 덕분에 우리 대부분이 그간 객관적인 도덕 가치가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맥키는 세 논증이 지지하는 오류 이론을 통해 실재론자들의 형이상학적 주장을 설파하려 시도한다. 그렇다고 그가 도덕 따윈 없으니 인류가 흄스적 투쟁 상태로 이행되리라 주장하거나 도덕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도덕 허무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강조하지만 맥키는 도덕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도덕 인지주의자다. **오류 이론과 제시된 세 가지 논증을 통해서 맥키가 최종적으로 주장하고자 한 것은 도덕은 보편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에 가깝다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제하고, 사람들이 서로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도덕의 발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준에서 요구되는 타당성이 우리의 도덕 판단에 요청되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어떤 이데아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도덕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맥키의 이론의 의의는 윤리를 제1단계(first-order), 합의 가능하여 맥락 내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도덕과 제2단계(second-order)의 도덕, 즉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 보편 객관화될 수 있는 도덕

10) *Ibid.*, p. 38.

11) *Ibid.*, p. 39.

12) *Ibid.*, p. 38.

13) *Ibid.*, p. 38.

14) 윤화영, 「오류이론과 준실재론」, 『철학적분석』 22, 한국분석철학회, 2010, 143쪽.

15) J. L. Mackie, op. cit., p. 42.

가치로 구분하여 개념을 실증적으로 풀어냈다는 것이다.¹⁶⁾ 맥키는 제1단계의 도덕 차원에서 윤리 개념 스스로 합의점을 끊임없이 쉼,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에 그의 이론은 일정 실용주의적이기도 하다.

이런 맥키의 오류 이론(메타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본질에 대한 개념적 연구이기에 윤리 전체의 틀을 잡는 근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전자의 논의가 응용 윤리학으로의 확장성을 내포한다는 점, 더불어 앞서 설명했듯 맥키가 인식주관과 별개로 존재하는 ‘모든’ 객관적 가치를 부정했다는 점을 살필 때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한 윤리 논의 역시 이 같은 확장 가능성 안에 포함된다. 하지만 도덕 개념이 이해관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현대에도 실증적으로, 특히나 그 범위나 개념적 확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콘텐츠 영역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의 필요성은 있다. 본 발표의 한정된 분량으로 필자가 행한 검증의 설명을 간략히 서술하자면, 필자의 경우 이러한 확장 가능성을 긍정하며 그것의 근거로 각 세 논증을 확장시켰는데, 첫 번째, 기이성 논증의 경우 윤리학계 전반에 미친 파장 때문에 이에 대한 학문적 비판과 논쟁이 철학의 영역에서 열띤게 이뤄졌으나 기이성 논증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맥키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한 함의를 지닌다는 점. 상대성 논증의 경우 그것이 이론적으로 미결정 상태(underdetermination of theory)이기에 현대에 상대성이 중시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여전히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¹⁷⁾ 투영 논증은 사실 인간상에 대한 논의로,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흄의 이론이 문화콘텐츠의 소비자 연구(행동경제학)에도 근간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 생산자와 구분선이 점점 흐려진다는 점에서¹⁸⁾ 문화콘텐츠 연구에 흄의 이론을 접목하는 것이 비약이 없다는 것으로 논증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맥키의 도덕 회의주의는 문화콘텐츠 영역의 윤리로 확장될 수 있다.

참고문헌

- Lewis, C. I., *The Ground and Nature of the Right*,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5.
 Mackie, J. L., *Ethics: Inventing Right and Wrong*, Penguin, 1977.
 Sayre-McCord, G., *Essays on Moral Realis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Singer, Peter, *A Companion to Ethics*, Oxford, UK: Blackwell Reference, 1993.
 W. V. Quine, “On the Reasons for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67, 1970, p. 179.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 외』, 김, 2007, 134-9쪽.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문화콘텐츠의 중요성, 2014.
 윤화영, 「오류이론과 준실재론」, 『철학적분석』 22, 한국분석철학회, 2010.

16) *Ibid.*, pp. 15-7.

17) 콰인에 의하면, 단순히 감각 경험에만 의존하는 이론들은 참과 거짓이 논리적으로 미결정상태이다. 왜냐하면 경험적 근거는 하나의 사실(진술)에만 등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실(진술)과 관련이 있기에 하나의 동일한 경험 자료로 지지되는 이론이 논리적으로 무수히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경험에 근간한 이론의 진릿값이 결정되는 현상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 실천적인 추론의 측면에서, 즉 우리의 감각 경험에 근간한 믿음, 문제의 접근 방법에 대한 용이성 등등 개개인의 해석 체계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한다.

W. V. Quine, “On the Reasons for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67, 1970, p. 179.

18)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 외』, 김, 2007, 134-9쪽.